

통일부 정례브리핑

2023.5.19.(금) 10:00, 이효정 부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,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통일부 장관은 오늘 13시 40분에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6기 통일부 청년기자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.

50명의 대학생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기자단은 통일부의 주요 활동을 취재하여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

다음은 신통일미래구상안 국민여론 수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5월 23일 '2023 청년대화'를 시작으로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 및 의견 수렴, 각계 간담회, 전문가 대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행사를 진행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, 여론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

국민 의견 수렴은 7월까지 20여 개 대면·비대면 행사를 통해 연인원 5,000여 명 이상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.

아울러,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주한외교단 등 국제사회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갈 계획입니다.

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국내외 의견 수렴 결과와 각 관계 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신통일미래구상안을 성안하여 연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

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.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오늘 자 노동신문 보면 워싱턴 선언이나 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북한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.

<답변> 아시다시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.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기보다는 핵·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북한의,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돌보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끝>